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GTX 등 경기도내 철도사업 적극 추진!

-경기도 철도사업 공동협력 협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철도건설사업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속추진 ▲수도권지역 KTX 이용 확대를 위한 고속철도망 확충 ▲경기도내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조기추진 ▲철도사업 예산확보 및 인허가 및 민원사항 해결 공동 노력 ▲환승센터 구축 등 역세권 개발사업, 신교통사업 추진 공동 노력 ▲철도기술 및 인력 상호교류 확대 등 6개항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21개 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 1개, 광역철도 9개, 일반철도 11개)에 대한 예산 확보,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이 공단과 경기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내 철도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전력설비 시공 완료

- 고속차량 투입, 시속 300km까지 증속 시험 시행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호남고속철도 오송 ~ 광주송정역 전 구간(182.3km)에 대한 변전소, 전차선 등 전력설비 시공을 완료했다.

본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력설비의 시공 상태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거쳐 지난달 20일부터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에 전기공급을 시작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철도 차량을 투입해 시속 300km까지 증속하면서 전력설비에 대한 동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동적시험 : 선로에 고속차량을 운행하면서 품질을 확인하는 시험

호남고속철도 전력설비는 지난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며 공사과정에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전력선은 이달 2일까지 전량 교체를 완료했다.

전력선 시공완료 후 고속철도 차량을 투입해 300km/h의 속도로 운행하여 시험했으며, 시험결과 전차선 이선율*(기준 1%미만)이 0.011% ~ 0.028%로 매우 양호했다고 전했다.

* 전차선 이선율 : 전기차 운행 중 전차선과 전기차의 집전장치가 서로 떨어지거나 접촉하는 정도로 전력선의 주요 품질점검 사항

본부 관계자는 "오송 ~ 익산 구간 등 2개소는 400km/h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공해 국내 최고속도의 고속철도 전차선로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시공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400km/h 시공구간(56km)

- 하선 : 호남고속철도 오송 ~ 익산간 28km(54km ~ 82km)
- 상선 : 호남고속철도 익산 ~ 광주간 28km(100km ~ 128km)

수서~평택 고속철도 사업 전사적 추진 체계 구축

-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발족 현판식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총사업비 3조 1,197억원이 투입되는 수서~동탄~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연장 61.1km)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지난달 19일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을 발족했다.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은 수도권본부 소속에서 본사 직할 소속으로 편제시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이 가능도록 하였으며 고속철도분야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실을 수서역 인근으로 전진 배치해 지난 5일 현판식을 가졌다.

강 이사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개통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품질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전 직원과 협력사에 부탁하면서 "수도권고속철도사업은 서울~시흥간 선로용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KTX 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동탄신도시 교통문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76종 신호·통신자재 검사 및 시험항목 개선

- 협력사간 합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실질적 동반성장 도모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이달부터 협력사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험항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철도신호·통신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신호와 통신분야 총 76종 자재의 4207개 검사항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동안 과잉 검사로 지적받던 신호자재의 선로전환기 최단 전환시험은 삭제하고 신호계전기 및 전자연동장치의 안전점검 항목을 신설했다. 또 통신자재는 최신기술 발전에 맞춰 영상감시설비, 연선전환기 등의 점검항목을 개정했다.

본부 관계자는 "검사기준 개정으로 공단과 계약자간의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을뿐 아니라 일관된 업무프로세스로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재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자재 표준화 확대를 통해 협력사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동해안 여행은 기차를 타고

- 동해선 포항 ~ 삼척 2단계구간 철도건설사업 발주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동해선 포항 ~ 삼척 철도건설사업의 2단계 구간인 영덕 ~ 삼척 철도건설사업 12개 공구 122km 건설사업 중 3개 공구(6, 15, 16공구)에 대해 지난 5일 입찰을 공고했다.

▶ 영덕 ~ 삼척 철도건설사업은 경상북도 및 강원도 동해안권을 철도로 연결해 동해안권 교통수요를 분담함과 동시에 동남권과 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동해권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2조 9893억원이 투입된다.

계약처는 12개 공구의 일괄발주로 인한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구별 시공날수도 등을 감안해 지난 5일 3개 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순차적으로 9월 말 4개 공구, 10월 초 4개 공구, 12월 1개 공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덕 ~ 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10월 초 발주예정인 4개공구(9, 10, 11, 12공구)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건설업체가 추가를 굳세우고 있다.

한편 계약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참여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를 가산하고 중소기업 참여시 분야별 최대 2점을 가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에정액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 손해배상에정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공단에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영덕 ~ 삼척 철도건설사업은 금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열차를 타고 부산부터 경북 동해안을 거쳐 강릉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계획	공구	연장	사업비	낙찰자 결정방식
1차(14. 9. 05)	6공구	10.13km	1,430 억원	최저가
	15공구	8.88km	1,820 억원	
	16공구	11.47km	1,820 억원	
2차(9월 말)	7공구	11.95km	1,790 억원	최저가
	8공구	11.03km	1,810 억원	
	13공구	9.01km	1,450 억원	
	14공구	8.01km	1,710 억원	
3차(10월 초)	9공구	9.16km	1,430 억원	종합심사
	10공구	10.84km	1,170 억원	
	11공구	9.05km	1,600 억원	
4차(12월)	12공구	7.54km	1,420 억원	낙찰제
	17공구	15.16km	2,350 억원	